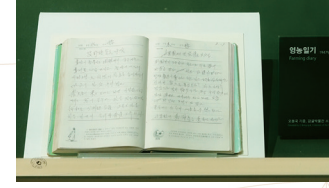




감귤과 옛 농기구

1960년대 제주 농민들은 돌 많은 밭에 감귤 묘목을 심으며 미래를 걸었습니다. 재래식 도구와 맨손의 노력은 기술 보급으로 이어져 제주 감귤이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봉국 영농일기

영농일기를 통해 제주 감귤 산업의 초기 모습과 1971년 첫 수확의 기쁨과 농민들의 긴 노력과 희망을 보여준 소중한 증거입니다.



감귤기술양성소 수료 사진

1967년 촬영된 감귤기술양성과정 수료 사진은 제주 감귤 산업의 전문화를 이끈 중요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제주감귤 미래를 달리다

감귤 산업은 생산·가공·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세계 감귤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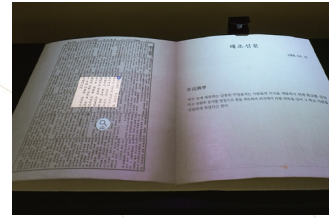
전시관 소개

세계감귤전시관은 약 100여 품종의 감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유리온실로 세계 각지의 독특한 감귤과 제주 재래귤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감귤의 기원과 품종별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감귤 문화를 즐기며 배우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시트러스 크루와 알아보는 감귤 꿀팁

감귤박물관의 '시트러스 크루'는 감귤의 영양, 효능, 품종, 활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맛있는 감귤 고르는 법부터 진짜차 만들기, 다양한 감귤 품종 소개, 감귤 요리 아이디어까지 폭 넓은 정보를 전하며 감귤의 매력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옛 신문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제주감귤

일제강점기 신문 기록은 제주 감귤이 허귀 작물에서 산업 작물, 생활 속 과일까지 변화해 온 흐름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귀한 식물로 소개되었고, 1920~30년대에는 재배 장려와 소비 증가가 이어졌으며, 감귤 껍질 활용법까지 소개될 정도로 일상적인 과일로 자리 잡아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귤박물관 실감콘텐츠

감귤이 자라는 사계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몰입감 있는 영상 전시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감귤밭의 분위기를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감귤의 생명력과 제주 자연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귤의 시작을 상징하는 '감귤 세계수'가 장관을 이루며 전시를 마무리합니다.



전이공간 - 감귤나무의 휴

감귤이 자라는 제주 화산회토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이 흙은 배수성과 보수성이 뛰어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약산성 토양은 감귤나무와 잘 맞아 달콤한 열매를 키워내며, 제주 감귤이 특별한 이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입니다.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 야외 체험 등을 통해 감귤의



moran museum of art



감귤박물관
CITRUS MUSEUM

관람시간

개장 오전 09:00 ~ 오후 18:00
휴관 1월 1일, (설날, 추석)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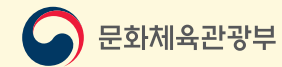
636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신효동) 감귤박물관
T 064. 760. 6400~1 F 064. 760. 6409

<https://culture.seogwipo.go.kr/citrus/index.htm>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영상 안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작품 해설을 수어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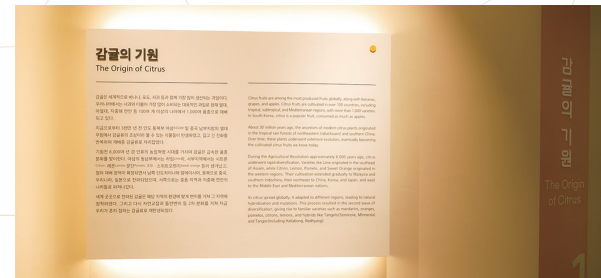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은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공립 전문 박물관 기원과 제주인의 삶을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귤 문화의 가치를 쉽고 즐겁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귤의 기원



감귤은 전 세계에서 널리 재배되는 과일로 약 3천만 년 전 인도·중국의 열대 숲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인류의 재배와 품종 교잡을 거치며 여러 지역으로 퍼져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감귤은 자연과 인간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귀한 결실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제주감귤의 역사

제주는 기후와 지형 덕분에 오래 전부터 감귤이 자라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삼국사기』와 여러 기록을 통해 4세기 이전부터 제주에서 감귤이 재배되고 왕에게 진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귤은 동아시아 교류 속에서 귀한 과일로 자리하며 제주 고유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삼국사기』 복제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삼국의 정치와 문화, 생활상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백제 문주왕 시기 탐라가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을 통해, 제주 감귤과 지역 교류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고려사』 복제

『고려사』는 고려 시대의 정치·문화·사회상을 폭넓게 담은 역사서로 제주 감귤 관련 기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종 6년에는 탐라에서 해마다 바치는 감귤의 양을 100포로 정했다는 내용이 등장해 감귤이 국가적으로 관리된 중요한 공물임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특별 등용문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신하와 유생들에게 감귤을 내리고 감사 글을 짓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솜씨를 겨루는 황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등에게는 과거 초·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권을 줬. 감귤이 특별한 등용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속록

『대전속록』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법전으로 세급·의식·군사·형벌 등 국가 제도를 정제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안에는 제주 감귤을 왕실에 진상하던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품질 좋은 감귤을 재배한 백성에게 상을 내리라는 조항을 통해 감귤 재배가 국가적으로 장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삼현도 복제

『해동지도』에 수록된 『제주삼현도』는 18세기 제주 지리를 상세히 담은 지도입니다. 정의·대정·제주의 고을과 관아, 마을, 목장, 감귤 과원 등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당시 제주 환경과 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동의보감과 제주감귤

조선 시대의 감귤은 약재로도 귀하게 쓰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귤껍질을 말린 진피와 덜 익은 귤을 말린 자실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으며, 소화 개선과 기침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합니다. 향이 뛰어난 제주 감귤은 왕실에서도 약재로 사용될 만큼 특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탐라순력도와 제주감귤

《탐라순력도》에는 감귤과 관련된 세 장면이 담겨 있어 당시 감귤 문화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감귤 과원의 풍경, 재배 전통, 조정에 바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감귤이 제주 자연과 역사, 왕실과의 교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재래귤

제주에는 오랜 세월 자생해 온 다양한 재래귤이 전해 내려옵니다. 유자, 동정귤, 진귤, 당유자, 청귤, 병귤 등은 각각 향과 쓰임새가 달라 약재·차·제례용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들 재래귤은 제주인의 생활과 전통 속에 깊이 자리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병귤

병귤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독특한 모양을 지닌 재래귤로 향이 강하고 껍질 활용도가 높아 제주에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껍질은 향신료나 고명으로 쓰였고, 달여 마시는 병귤차는 소화와 호흡기에 좋다고 전해져 오래도록 제주인의 생활에 함께한 과일입니다.



동정귤

동정귤은 조선 시대 임금께 바치던 귀한 진상품으로, 제주시 애월읍에 남은 기념물 나무가 제주 감귤 재배의 오랜 역사와 왕실 문화를 지금 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당유자

당유자는 크고 향이 강해 '왕귤'이라 불린 재래귤로 조선시대 임금께 바치던 귀한 진상품이며,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간직한 품종입니다.



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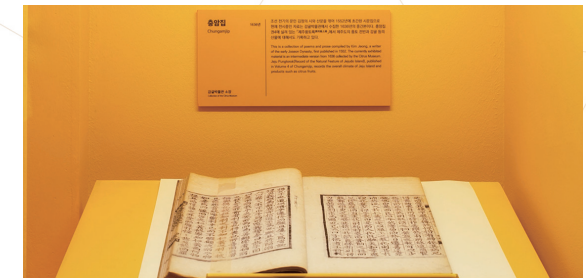
유자는 향이 뛰어난 궤로 차와 약, 향신료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란 열매와 깊은 향이 특징이며, 제주인의 생활과 함께 해 온 전통 품종입니다.



진귤

진귤은 작지만 향과 약효가 뛰어난 제주 재래귤로 얇은 껍질의 진피가 약재로 쓰였습니다. 산에서 자라며 제주인의 삶과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열매입니다.

제주풍토록



『제주풍토록』은 조선 중기 문신 김정이가 제주 유배 중 직접 보고 들은 자연환경과 생활문화를 기록한 글입니다. 제주의 기후·풍속·방언·농업과 해산물 등 일상을 생생히 담고 있어 16세기 제주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일본지리풍속대계

『일본지리풍속대계』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리와 생활문화를 정리한 대규모 총서로 조선 편에는 각 지역의 풍습·신앙·의식주·농사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관한 자료도 풍부해 마을신앙과 제의 문화 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민속 자료로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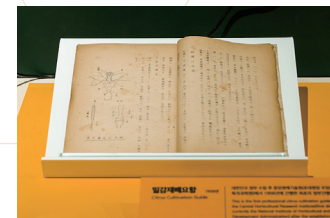
조선 중요물산 및 특산물 분포도

1933년 제작된 '조선 팔도의 주요 특산물 분포도'는 일제강점기 지역별 농수산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로 제주에 감귤 대신 해산물과 소가 표기돼 해방 이전 감귤 산업의 미성숙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감귤원에 잡지

『감귤원에는』는 1980년 창간된 감귤 전문 잡지로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품종 개발 정보를 꾸준히 전하며 감귤 산업의 흐름과 현장 변화를 기록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 온 소중한 자료입니다.



밀감재배요항

1956년 발간된 『밀감재배요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감귤 재배 안내서로 모목 선택부터 수확·저장까지 재배 과정을 체계화한 책입니다. 해방 이후 제주 감귤 산업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